

## 교사는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냥 교사는 없다. 교사는 반드시 모종의 교과를 가르친다. 수학을 가르치든지, 체육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여, 체육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배드민턴을 잘 치게 하든지, 달리기를 잘 하도록 가르친다. 그렇다면 배드민턴을 잘 치도록 하는 데에도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채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도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학생들로 하여금 배드민턴 채를 올바르게 잡고 배드민턴을 치도록 가르치면,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드민턴을 잘 치도록 가르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그 교사는 교육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훌륭한 교사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할 경우에 체육이나 과학 등 교과를 잘 가르치는 데에 교육철학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특히 현직 교사들—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교과를 잘 가르치는 데에도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교과를 잘 가르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사가 존재할 수 있다면 모를까, 훌륭한 교사란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을 그 핵심적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한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교과를 잘 가르치는 데에는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철학 공부를 해야 한다면 교과를 잘 가르치는 데에도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철학 공부를 해야 하지만 교과를 잘 가르치는 데에는 반드시 교육철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철학을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 교육철학은 ‘자신’의 교육관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공부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 교육철학은 자신의 교육관을 가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과거의 교육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연구 결과물들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보면, 교사는 교육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위의 질문은

과거의 교육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물을 공부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교육철학(또는 교육관)을 정립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재진술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교육철학자들의 연구결과물을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질 것이다. 교과를 잘 가르치는 데에 반드시 교육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잘 나타나 있듯이, 과거의 교육철학자들의 연구결과물들을 그들의 생각에 대한 이해없이 배운다면, 이런 식의 교육철학 공부하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거의 교육철학자들의 연구결과물을 어떻게 공부하면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겠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교육철학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철학은, 개략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철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만큼, 상당한 정도로 철학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 오천석에 따르면,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1. 기본원리의 탐구, 2. 포괄적 성격, 3. 규범적 기능, 비판적·분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철학이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물, 또는 일상적인 의견이나 신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면에 깔려 있는 기본 원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철학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단편적인 경험이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다양하고 지리멸렬한 현상 속에서 일관된 통일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철학이 규범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발견 사실들을 평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이 행해야 할 규범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철학이 비판적 분석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애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관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재봉에 따르면 철학은 1. 분석적 기능, 2. 평가적 기능, 3. 사변적 기능, 4.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분석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론적 혹은 일상적 언어의 의미와 거기에 함의된 논리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거나 각종 가치 판단 기준을 밝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평가적 기능은 어떤 실천, 이론, 주장, 원리 등이 주어진 모종의 준거에 비추어 만족스러운가를 밝히는 행위이다. 사변적 기능은 이론적 혹은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견, 가설, 제언, 가설, 원리 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기능은 하나의 현상이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부분과 차원을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행위이다.

학자들은 보통 철학 또는 교육철학의 기능을 이상과 같이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

러나 철학의 기능을 이와 같이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각종 생각의 의미를 따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보다 올바른 의미에서의 교육의 개념을 알게 되며, 그 교육의 개념에 비추어 교육에 관한 어떤 이론이나 실천, 주장들이 만족스러운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